



필립모리스
“비연소 제품 독보적
유해물질 감소”
니



코스맥스
연간 매출 2兆 기대
해외 경쟁력 확대 영향
L2



대학 등록금 16년 만에 인상... 103곳 확정, 동결은 43곳뿐

사총협 “재정난 심화로 불가피”
인하대·성신여대 등 5% 이상 ↑
5.49% 법정 상한선 올린 대학 5곳
동결 43곳... 44곳 인상 여부 논의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문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하는 이화인 32339인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마친 후 본관으로 행진해 문이 닫혀 있어 피켓을 붙이고 있다. /뉴스시

지금까지 국내 4년제 대학 54%에 해당하는 103곳이 오는 1학기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 중인 대학은 44곳으로, 최종 인상대학은 130곳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54.2%에 해당하는 103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인상 대학 중 사립대와 국공립대학은 각각 151곳, 39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에서 52개교, 비수도권 대학에서 51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인상률을 살펴보면, 등록금을 5.0~5.49% 수준에서 인상한 대학이 47곳(45.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대학 5곳은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인 5.49%에 맞춰 인상을 결정했다.

이러 ▲4.0~4.99%(37곳·35.9%) ▲3.0~3.99%(8곳·7.6%) ▲2.0~2.99%(2곳·2.0%) ▲1.0~1.99%(1곳·1.0%)로 각각 집계됐다.
주요 대학 인상율은 ▲경희대(5.1%) ▲고려대(5.0%) ▲광운대(4.85%) ▲국민대(3.80%) ▲덕성여대(4.85%) ▲동국대(4.98%) ▲동덕여대(4.20%) ▲상명대(4.95%) ▲서강대

(4.85%) ▲성균관대(4.9%) ▲성신여대(5.3%) ▲세종대(2.5%) ▲숙명여대(4.85%) ▲숭실대(4.95%) ▲연세대(4.98%) ▲이화여대(3.1%) ▲인하대(5.2%) ▲중앙대(4.95%) ▲한국외대(5.0%) ▲한양대(4.9%) 등이다.
반면 지금까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은 전체 대학 22.6%에 해당하는 43곳에 그쳤다. 대학 44곳(23.2%)은 여전히 등록금

인상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41곳은 사립대, 3곳은 국공립 대학이다. 이중 절반가량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다고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130여곳에 달하는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사총협은 지난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정상적인 대학 운영과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난이 심화해 대학 경쟁력이 추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등록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등록금 동결을 유지해 온 16년간 불가인상으로 실질적인 등록금 수입이 1/3로 감소해 재정부담이 가중됐고, 우수 교수 초빙,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 시설의 개보수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계속된 복지 개선과 시설투자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상된 등록금의 사용처와 활용계획에 대해 각 대학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서비스 향상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처장은 “대학들은 실험 및 실습 기자재 개선과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수 채용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교육시설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장학금 등 학생 복지 향상과 교육 품질 개선에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총협은 매년 되풀이되는 등록금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며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진흥법을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시적인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연장하는 한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처장은 “정부는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들이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행·재정 규제를 개선해 대학들이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동남권 주민 66% “안전 체험관 필요”

미취학 아동 부모 76% “체험교육 절실”
성인 대상 프로그램 확대·홍보 필요

서울 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 사는 시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동남권 내 안전 체험관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안전 교육 수요에 발맞춰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여론 조사 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작년 10월 18~25일 만 19세 이상 동남권 거주자 1000명 대상으로 벌인 안전 체험관 관련 시민 의견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6.4%가 동남권에도 안전 체험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안전 체험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미취학 아동인 자녀를 둔 응답자 열에 일곱 이상(76.4%)이 동남권에 안전 체험관이 조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 안전 체험관은 소방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시민들의 재난 대처 능력과 안전 의식 함양을 위해 건립된 시설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광나루 안전 체험관(광진구 능동)과 보라매 안전 체험관(동작구 신대방동)이 운영되고 있다.

서던포스트는 “미혼(66.3%)이거나 자녀가 없는(60.6%) 응답자의 경우에도 과반수가 서울 동남권에 안전 체험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확충을 희망하는 답변이 많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 체험관이 전 연령을 대상으로 운영 중임에도 프로그램 대부분이 아이들을 타깃으로 운영·홍보돼 성인들도 참가 가능하다는 점이 등한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성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남권에 안전 체험관이 생겨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재난·안전 체험 활동 공간 필요’(39.7%), ‘안전 교육에 대한 수요 증대’(32.5%), ‘학교 안전 교육 자원 부족’(19.1%), ‘지역적 실태’(8.5%)를 그 이유로 들었다. /김현정 기자 hjk1@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확대 설치

서울시, 2030년까지 4000곳 설치

서울시는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을 확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녹색 보행 신호 시간뿐만 아니라 적색 대기 신호 시간까지 알려주는 신호등이다. 보행

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고 신호등 점등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무단 횡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650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시내 6차로 이상 횡단보도 총 4000곳에 적색 잔여 시

간 표시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확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이달 28일부터 신청·접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월 28일부터 이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

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 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와 청년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계획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 3천만 원과 2025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8호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2월 6일 (木) 음력: 1월 9일

수도권 날씨 -1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31 | 해질 / 18:01

지역별 날씨: 연천 -16/-1, 동두천 -14/-2, 가평 -16/-2, 파주 -15/-1, 서울 -12/0, 양평 -14/-2, 인천 -11/0, 수원 -10/0, 용인 -10/0, 평택 -13/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장미란 차관, 장애인 국가대표 격려... “최고 경기력 펼칠 수 있게 지원” /사진 뉴스시
▲‘골프 황제’ 우즈 모친 별세... “나의 큰 팬이자 지지자”

▲“이기흥 체제서 받은 상처 보듬어 주길”... 체육회 노조, 유승민 당선인과 만남
▲뮤지컬 ‘명성황후’ 국내 누적관객 200만 돌파... 창작뮤지컬 최초

▲국립중앙박물관, 교육영상 제작해 문화유산 배움 확산 나선다
▲“캡틴아메리카에 ‘달콤한 인생’ 오마주 액션 담았어요”